



5년

전주시 경제사절단,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음 10월 11일) 제3621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 전북자치도 예산 10조6919억원

올해대비 7.0% 증액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
미래 성장기업 유치 등
전북 미래 준비에 중점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 편성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병관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가 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예산안으로 총 10조6,919억원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2024년 예산 9조9,908억원 대비 7,011억원(7.0%) 증가한 규모다.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전환해 재원 마련에 힘썼다.

다만, 민생·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7.1%(2023년도말 7,235억원)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으나,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

할 방침이다. 2025년 예산은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농어민 행복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산학 공동협력 대응 강화, △도민 안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저출생 TF를 통해 발굴된 저출생 대책을 각 분야별 예산을 담았다.

또한,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기업인의 꿈과 청년의 꿈,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

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우리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이 열린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든든한 동행! 전북교육 학부모들과 화합의 장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 교육청서 개최
학부모 5000여명 참여... 홍보·전시 등 진행
다양한 정보교류·풍성한 체험 '큰 호응' 얻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학부모협의회(회장 정유미)가 주관한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이 지난 9일 도교육청 앞마당과 참조나래 2층에서 개최됐다.

시·군별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 운영결과 공유 및 사례 나눔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는 도내 학부모 5,000여명(QR 등록으로 집계)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가족단위로 진행된 '명랑운동회'에는 행사 내내 자녀와 동반한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보교류와 풍성한 체험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의 세트를 꿈꾸는 전복베이

커리고(카페베이커리과)와 남원제일고(조리제빵과) 학생들이 운영한 푸드트럭에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됐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협의회장은 "올해 전북 학부모 한마당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면서 "학부모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활발한 학교 교육 참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멋진 화합의 장이었다"며 "행사 준비에 힘써준 학부모협의회 임원과 학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이 도약하는 데 학부모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1월 17일을 기억하라... 광복회 전북자치도지부, 15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11월 15일 기념식과 학술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에서 일제에 빼앗긴 국권회복을 위해 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당한 11월 17일을 기억하기 위해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기념일로 삼았고, 1997년 5월 9일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올해는 11월 15일에 기념식을 개최한

학술발표 행사와 병행

다.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광복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아울러 학술발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은 약사보고와 기념사에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등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 기념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동부보훈지청이 후원했다.

한편 학술발표는 '전북 의병과 미래 공동체'라는 주제로 광복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

센터전북연구원,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학술발표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서정화 센터장의 사회로 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가 '한말 전북 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변주승 원장이 '전북 의병의 연구 방향과 미래 과제'를 발표한다. 토론은 광복회 이강안 전북특별자치도지부장, 충남대 한문학과 이항배 교수, 전북대 사학과 윤상원 교수, 전북도민일보 배청수 사회부장이 맡는다.

의병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

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번 발표에서 김건우 교수는 가장 치열했던 한말 전북 의병의 발굴과 서훈 성과,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한다. 변주승 원장은 전북 의병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북 의병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강안 지부장은 "순국선열의 날은 매년 다가온다. 의병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흔적을 추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바란다. 이번 학술발표회를 계기로 도민들도 선열들의 공열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특별자치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장수 승마 레저파크 포니랜드

- 위치**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680번지 일원 **운영시간** 09:00~18:00 (월, 화 휴무)
- 주요시설** 포니하우스 (식당 및 카페), 마사, 원형마장, 포니마차로, 힐링센터
- 체험시설** VR체험관, 말먹이주기 (말, 포니, 당나귀), 미니어처 승마
- 체험문의** 063)353-8883 **※ 주변 승마 체험 시설 : 승마체험장, 승마레저체험촌, 승마로드**

